

바다가 만들어낸 장편 생물소설

글_권오길

내 눈이 비틀어졌을까 아니면 머리가 엇비뚤어진 것일까? 주말에 '책'을 다룬 여러 신문을 읽으면서 요상한 생각에 잠긴다. 특이하게 느껴지는 것은 과학 분야에 관한 책이 드물고, 있어도 외국 사람이 쓴 것들뿐이다. 본란에 쓴 내 서평도 알고 보면 '국산'보다 '외산'이 더 많았다. 그러나 우리 책을 더 많이 소개하려고 애를 쓴 것은 사실이다. 무엇보다 국내에서 과학에 관한 글을 쓰는 이가 몇 안 되는 것도 현실

이지만, 그들이 애써 쓴 것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기자들이 뭘 몰라 그렇다. 필자도 꽤나 책을 낸 편인데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날 소개한 외국의 어느 과학서적보다는 괜찮아 보이는 데도 슛제 무시하고 만다. 황당하고 분해서 화가 하늘 끝까지 나도 어쩔 수 없다. 혼자서 방바닥만 두드리는 수 밖에. 하기가 메추리도 제 새끼가 이 세상에서 제일이라 생각한다!? 한마디로 제 나라 저자들의 것에도 관심을 가지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자(라)고... 저자들이 분발해야 한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본론으로 들어온다. 진작 소개했어야 하는데..., 그러나 늦다 생각할 때가 빠른 것이라 하니. 《현산 어보를 찾아서》를 소개한다. 먼저 저자 이야기다. 물론 원저자는 정약전 선생이다. 정약전은 다 알다시피 다산 정약용의 형이다. 정조 14년(1790)에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정조 21년에 병조좌랑이 되었다. 순조 1년(1801) 신유박해 때 천주교와 관련되었다는 죄목으로 신지도, 우이도, 흑산도를 떠돌며 유배생활을 하다가 1816년 우이도에서 생을 마쳤다고 한다. 이 책에 정약전을 '200년 전의 박물학자'라거나 '흑산의 박물학자'라고 쓰고 있는데 아주 멋진 표현이다. 동의하는 바이다. 유배를 당하면서 화풀이나 하다가 몸져누울 수도 있었을 터인데 주변의 생물들을 관찰하고, 또 그것을 기록해둔 점에서 과학성이 돋보이는 정약전이다. 그런 점에서 '박물학자'라 하기도 '생물학자'라 해도 조금도 손색이 없으신 분이다.

이태원 선생은 필자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생물(교육)학과 후배(동창)이다. 비슷한 유전자(DNA)를 가졌다고 해도 좋다. 같은 선생님에게서 배운 것도 생각이나 행동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고, 서로 유사한 점을 읽을 수 있다. '그 선생에 그 제자'라 하지 않는가. (세화)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는 점도 나와 닮았다. 필자도 대학교수가 되기 전에 15년 간 고등학교 선생을 했고, 그러면서 달팽이를 전공하여



● 이 글을 쓴 권오길은

서울대학교 생물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수도여중·고, 경기고교, 서울사대부고 교사를 거쳐 현재 강원대학교 생물학과 명예교수로 있다. 제42회 강원도문화상 학술상(2000), 제13회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저작상(2002), 제4회 대한민국 과학문화상(2003) 등을 수상했고 '달팽이 박사'로 불리며 일반인들을 위한 대중과학의 친절한 전파자 역할을 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꿈꾸는 달팽이》 《바다를 건너는 달팽이》 《인체기행》 《달팽이》 《생물의 애육살이》 《열목어 눈에는 열이 없다》 《바람에 실려 온 페니실린》 《어린 과학자를 위한 몸 이야기》 등 다수가 있다.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가르치는 것만도 버거운데 연구하고 책 만드는 것이 어디 그리 쉬운 일인가!? 이 선생은 “어릴 때부터 뭔가를 잡으러 다니길 좋아했다. 늘 산과 들, 냇가를 헤매며 메뚜기와 개구리, 물고기를 잡았다. …, 식물에 흥미를 느껴 산과 들을 누비며 사진을 찍었다. …, 최기철 교수님의 육수학 강의를 들으며 물고기 공부를 시작했다. …, 마산의 한 서점에서 《현산어보》(鉉山魚譜)의 번역본을 만났다.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이후 7년에 걸쳐 《현산어보》에 나온 생물들의 정체를 규명하고 정약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일에 매달렸으며…”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했고, 호사무견제(虎師無犬弟)라고 범 스승인 최기철 선생님 밑에서 개 제자가 아닌 범(이 선생)이 태어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도 거기에 끼어준다면 영광이겠다! 정말 애써 좋은 책을 쓴 이 후배에게 찬사를 보낸다.

책으로 들어가 보자.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 있으니, 왜 여태 《자산어보》라고 했는데 《현산어보》라고 하는가? 간단히 말하면 ‘鉉’ 자는 발음은 ‘자’ 이지만 뜻은 검은 ‘흑’(黑)이고, ‘검을 현(玄) 자를 포개 쓴 글자라 ‘현’으로 읽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현산’(鉉山)이란 바로 흑산도의 ‘흑산’(黑山)을 뜻한다. 어보(魚譜)란 ‘어류에 관하여 계통과 순서를 따라 기술한 책’이란 의미다. 그 외에도 《현산어보》라고 불러야 할 여러 가지 사례(이유)를 책의 제일 앞에 열거하고 있다.

《현산어보를 찾아서》는 모두 5권으로 되었다. 책 한 권, 한 권의 제목도 멋 떨어지다. ‘200년 전의 박물학자 정약전’, ‘유배지에서 만난 생물들’, ‘사리 밤하늘에 꽃핀 과학정신’, ‘모래섬에서 꿈꾼 녹색세상’, ‘거인이 잠든 곳’ 등. 사실 책을 들고 한 장 한 장 넘기기만 해도(읽지 않고) 지루하지 않다. 저자가 찍은 동식물과 생태사진들, 아주 잘 그린 큼직한 동식물의 스케치(상명여대 미술학과와 파리국립예술학교를 졸업한 박선민 씨가 그림), 다양한 고전 자료들이 곁들여져 있어서 조금도 지루하지 않다. 그러다가 저절로 글에 눈이 간다. 글이나 말이 유창하고 아름다운 것을 유려(流麗)하다고 한다. 쉽게 쓴 글에다 재치 있는 표현, 소상하면서도 지루하지 않을 유려한 문장에 속 빠지고 만다. 생물을 전공한 필자이기에 느낌의 농도가 짙고 심도가 깊은 것을 당연한 이치다. 장편 생물소설이다!

그리고 글을 넘기다 보면 흑산도와 우이도 해변을 걷는 느낌이 들뿐더러 그곳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어 좋다. 한마디로 200년 전의 어촌 풍광이 눈앞에 서린다. 그리고 이

선생이 얼마나 자주 그곳을 드나들었으며 고증(考證)에 심혈을 기울였는지 알 수가 있다. 한마디로 흑산도에 미쳤다!

‘어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바닷물고기가 주를 이루기에 그렇지 실은 조개, 고둥, 군소, 군부, 따개비, 게, 성게, 풀가사리, 해초(海草)까지 바다에 사는 모든 동식물이 총망라되어 있다. 책에서 필자가 전공하는 패류의 한 종인 홍합에 눈이 번쩍 띄었다. “담채(淡菜) 속명 홍합(紅蛤). 껍질의 앞쪽은 둥글고 뒤쪽은 뾰족하다. 큰 높은 길이가 한자 정도이고 폭은 그 반쯤 된다. 뾰족한 봉우리 밑에 털이 더부룩하게 나있어 돌에 붙는데 수백수천 마리가 무리를 이루고 있다. 껍질 표면은 새까맣지만 안쪽은 검푸르고 매끄럽다. 살색이 붉은 것과 흰 것이 있다. 맛이 감미로워 국을 끓여도 좋고 젓을 담가도 좋다. 그러나 말린 것이 몸에 가장 좋다. 콧수염을 뽑아서 피가 나는 경우에 지혈시킬 약이 없다. 이 때 홍합의 수염을 불로 태워 나온 재를 바르면 신통한 효험이 있다.” 그 밑에는 이청주의 주서를 달아놓았다. “《본초강목》에서는 홍합을 각채, 해폐, 동해부인(東海夫人)이라 부른다고 했다.”

대단한 안목이다! 홍합의 크기, 형태, 생태는 물론이고 약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기술하고 있으니 말이다. 이 선생은 여기에 다시 상세한 설명에다 홍합과 진주담치의 차이, ‘털’이란 표현은 ‘족사’(足絲)로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산어보》에 기술한 홍합은 “절대로 진주담치가 아니다”라는 주서를 붙였다. 이 분야에 전공하는 우리 정도라야 알 수 있는 것인데 말이지. 우리가 주로 먹고 있는 홍합이라는 것이 바로 진주담치다. 이것은 유럽이 원산지로 200년 전에는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일본에도 없었다. 진주담치는 바다 물류가 활발해지면서 배의 밑바닥에 붙어서 온 세계로 퍼졌다. 다시 말하면 홍합은 오래 전부터 살았던 토종(재래종)이고 진주담치는 외래종이다.

여러 생물의 특징, 발생, 생태를 일일이 상세하게 해설을 붙이고 있어서 이 책에서 서해의 생물을 만난다. 뿐만 아니다. 정약전의 과거시험 답안지라던가 정조 임금의 죽음 등등 서양의 과학과 한국의 과학역사도 곁들여져 있다. 대단한 역작이다. 누가 써도 더 이상 논할 수 없는 결정판이다. 같은 생물학도로서 이렇게 박학하고 방대한 책을 쓴 대단한 노고를 높게 치하하는 바이다. 어찌 이런 책이 어정쩡한 외국 과학 책과 비교가 된단 말인가. 따라서 여러 선생님들이나 과학자들도 좋은 글 많이 써서 자기의 앎을 남(후손)에게 전하고 남기는데 신경을 써볼 일이다. 우리 모두가 정약전 선생을 닮아보자! **☞**